함평군,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막바지 준비 박차

"국화 향 가득" 마법의 국향랜드, 개장 초읽기"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국화 향기로 지역 전역을 물들이고 있다.

함평군은 20일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향대전은 어린 시절의 동심과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마법의 국향랜드'를 주제로 환상적인 테마파크형 축제로 꾸며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중앙광장을 장식할 대형 국화 조형물 '회전목마'(가로 12m, 높이 10m)와 '대관람차'(가로 4m, 높이 4m)다.

이와 함께 '마법의 성', '전시컵', '뽀로로와 친구들', '공룡·동물 캐릭터존' 등 대·중·소형 국화 조형물 95점이 어우러져 동화 속 놀이동산을 연상케 할 전망이다.

또한 억새·팜파스그라스·핑크뮬리 등 600여 본의 가을 식물이 어우러져 국화와 함께 다채로운 가을 정취를 선사한다.

국향대전의 대표 전시 공간인 '명품 국화분재작품 전시관'에서는 총 286점의 국화 분재가 전시된다. 전문가와 동호인 작품 186점을 비롯해 석부작·소품분재 100점 등 국화 분재와 천간작 2점과 대국 1,000점(겸육향국 외 20여 종)도 전시돼 함평의 국화 재배 기술과 예술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가을에 보는 나비'를 주제로 한 나비생태관도 운영돼, 살아 있는 나비와 국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전시로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축제는 밤까지 뜨거운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8일부터 열리는 '함평 겨울빛축제'와 연계해 야간 경관조명이 더해져 낮에는 국향, 밤에는 빛의 정원으로 변신한 함평의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회전목마와 대관람차 등 동심을 되살릴 수 있도록 향기로운 국화가 가득한 환상의 테마파크로 준비했다"며 "가을의 감성과 국화 향기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이 함평을 찾아 행복한 추억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 11월 프로그램 운영

스피치·SNS·향기 조향까지… 나를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강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11월 화순군 청년센터「청춘들락」에서 청년들의 자기 표현력과 콘텐츠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피치 전략, SNS 채널 운영 및 수익화 방법, 감성 향수 제작 등 자기계발과 창의적인 휴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기획됐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강의는 '나선희 스피치'의 교육 강사이자, 현직 아나운서가 함께한다. 보이스 트레이닝, 면접 대비 스피치 등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생별 피드백으로 유익한 시간이 기대된다. 해당 강의는 11월 4일(화), 11일(화) 이틀간 운영된다.

'SNS 운영전략 및 성장 솔루션'은 SNS 계정 운영 실전 감각을 높이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강의로 인스타그램 '광주테이스티' 계정을 운영 중인 인플루언서가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해당 강사는 12년간 광주·전남 1세대 맛집·숙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 SNS 운영 노하우와 수익화 전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는 11월 18일(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향기와 책을 매개로 하는 조향 프로그램 '감성 가득 북퍼퓸 클래스'는 11월 19일(수) 오후 7시에 운영된다. 자신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바탕으로 향기 키워드를 도출해 나만의 향기 책갈피와 향수를 제작해 보는 시간이다.

오감으로 기억을 표현해 보는 이색 체험으로 감성 충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발자취, 보성군에서 만나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 문화 축제'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보성읍 열선루공원 일원에서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리던 역사적 현장인 열선루의 의미를 되새기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체험형 축제로 마련됐다.

△ 제1회 보성열선루 이순신 역사 문화축제 학술세미나

24일 오전 11시, 열선루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동, 그리고 함께 싸운 보성 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선루의 역사적 가치와 보성의 항일 정신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 퍼레이드 '장군님 오신다'

24일 오후 5시, 취타대·의장대 4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가지 행렬이 열린다. 이순신 장군이 출정하던 장면을 재현하며, 보성역~보성읍행정복지센터~보성남초등학교~열선루공원 구간에서 충(忠)과 의(義)의 행진을 선보인다. 해당 시간에는 시가지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 제1회 보성 열선루 전국 장계 대회

보성 열선루 전국 장계 대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MBC 생중계로 방송될 예정이다. 조선시대 상소 문화의 정수인 '장계(狀啓)'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대회로, 전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이 열선루 현장에서 장계문을 직접 쓰는 경연을 펼친다.

△ 조선수군 병영 체험존 운영

열선루공원 일원에서는 조선시대 군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병영 체험이 상시 운영된다. 판옥선 만들기, 활쏘기, 전통 무예 시연, 옥사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 '장군의 밥상' 먹거리 부스

보성의 대표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장군의 밥상' 부스가 운영된다. 벌교꼬막, 회천전어, 보성녹돈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이 선보이며, 쉼터와 휴게 공간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안히 즐길 수 있다.

보성/김운기 기자

카메라 뉴스

무안군 해제면, 어르신 위한 '무료 안검진' 실시

무안군 해제면(면장 박성서)은 지난 22일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무료 안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낮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시력 저하 및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학병원 안과 교수 등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이동검진팀이 직접 해제면을 찾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검진 항목은 ▲ 시력·굴절검사 ▲ 안압검사 ▲ 세극등 현미경검사 ▲ 안저검사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안과계 수술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검진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눈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전하는 찾아가는 복지의 실천 현장으로, 그 의미가 컸다. /무안군 제공

장흥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번기 주말 확대 운영

장흥군은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토요일 총 7회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농번기 동안 농업인의 임대 농업기계 이용 편의와 적기 영농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주말 운영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농업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흥(본점), 남부(관산), 북부(장동) 3개 임대사업소에서는 50종 452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올해는 4,946건 109,178천원의 임대 실적을 올리며 전년 대비 30% 이상 이용률이 높아져 농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 제공

김순호 구례군수, 학부모와의 대화마당 마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21일'학부모와의 대화마당'을 열고,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마당에는 관내 초·중·고 학부모회장 및 운영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하여 지역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진학·진로 교육 컨설팅 확대 ▲청소년의 전용공간 확충 ▲청소년 이동수단 지원확대 등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지역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순호 군수는 "오늘 간담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부모님들과 마음을 나누고, 더 나은 교육정책을 함께 설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 KEPCO